

‘민족’을 바라보는 두 시선 — 신채호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

김희주*

요약

본 논문은 신채호와 이광수의 문학에 현상된 인물유형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주의 담론 양상이 어떻게 전개·변용되는가의 단초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 작가가 형상한 인물들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거나 담론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중국에는 민족의 개조를 지향하고 민족구성원이 근대의 ‘대중’으로 나아간다. 반면 신채호 소설의 인물들은 민족 개인의 각성으로 나아가 중국에는 ‘민중’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인다. 민족의 개조를 일괄하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전환되는가? 소설에서만 본다면 신채호의 근대는 민족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이 근대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고 이광수의 근대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은 개조하고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대상이었다. 근대에 대한 이 두 개의 다른 인식은 민족에 대한 형상도 다르게 규정된다. 신채호의 민족은 내면의 각성을 통하여 민족의 대통합과 주권을 되찾는 대상이지만 이광수의 민족은 낡은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근대국가로 개조되는 것이었다.

인물들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 내재된 인물의 형상이 결국에는 철저한 국가독립의 민족주의로, 혹은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면 이 두 작가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광수는 민족을 외적인 것에서 신채호는 내적인 것에서 형상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제어: 각성, 개조, 근대, 근대국가, 신문명, 신채호, 이광수, 민족, 민중

목차

1. 서론
2. 민족구성원의 형상들
3. 각성과 개조의 거리
4. 담론의 두 지향점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신채호와 이광수의 문학에 현상된 인물유형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주의 담론 양상이 어떻게 전개·변용되는가의 단초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한국의 근대는 식민지라는 지평위에서 시작되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 낯선 지평위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민족이란, 함께 당대의 위기를 견디어 내야 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주체 및 대상이었다. 당대의 작가들은 민족을 사상처럼 채택하고 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인물들을 민족담론으로 삼았다. 민족은 당대의 주요한 화두였다.

신채호(1880~1936)와 이광수(1892~1950) 또한 그러한 논의에서 배제될 수 없는 작가들이다. 그들은 동시대를 견딘 작가로서 문학을 통하여 치열하게 민족을 논의하고 정형화한 작가들이다. 그런데 이 두 작가의 문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신채호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기자 및 주필을 담당하면서 많은 논설과 정론을 발표하였으며 역사가로서 조선민족의 근원을 추적하고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내세운 역사 서술서를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문학에 민족주의 담론을 형상화하였다. 민족은 그의 전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였으며 주체였다. 그는 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논의를 통하여 당대의 위기극복에 민족구성원을 주체로 내세웠다.

이광수 또한 초기 문학에서 민족 정신영역의 계몽을 담당하며 유교적 관습과 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담론을 주도하였다. 거대한 틀로 보면 민족을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작가들은 당대 다른 작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걷는다. 그런데 이 두 작가의 민족주의는 중국적으로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 실마리는 그들이 형상화한 인물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작가가 현상한 인물들은 작가의 담론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점에서 신채호의 <꿈하늘>(1916)과 이광수의 <무정>(1917)은 비슷한 시기의 소설로서 민족의 형상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이 두 소설은 그들이 제시하는 민족담론만큼이나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다.

이광수 소설 <무정>을 근대소설로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 1910년대의 민족주의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근대성을 띤 인물을 형상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동시대의 신채호의 소설 <꿈하늘>은 근대소설의 범주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실상 아직도 신채호의 소설은 근대의 경계에 있는 신소설이라고도 확인할 수 없다. 그의 소설들은 확연히 고전소설의 기법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중후반의 이 두 소설은 서로 다른 민족주의 행보를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본고는 근대소설이라는 차원에서

이 두 소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소설에서 제시된 인물 형상화를 통하여 결국 다른 민족주의 행보를 걷는 작가의 의식세계를 추적해 보려 하는 것이다.

작가가 형상한 인물들은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거나 담론에 부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점에서 〈무정〉의 인물들은 근대를 지향하고 근대를 향하는 행보를 걷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중국에는 내선일체 지향의 민족 개조를 주장하고 민족구성원이 근대의 '대중'으로 나아간다. 반면 신채호 소설의 인물들은 민족 개인의 각성으로 나아가 중국에는 '민중'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인다. 민족의 개조를 일괄하고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전환되는가? 사전적 의미의 개조는 '고쳐 만들거나 바꿈'을 의미하고, 각성은 '깨어 정신을 차림'을 의미한다. 이 개조와 각성의 거리는 민족에 대한 부정과 긍정사이의 거리이다. 〈무정〉의 인물들의 근대에 대한 지향은 민족, 혹은 민족성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그의 근대국가를 향한 궁극적 지향점은 유형·무형의 봉건적 산물들이 개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형성된다.

반면 민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꿈하늘〉의 한놈은 민족의 의식에 개입하여 민중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다. 한놈의 민족의식에 개입하는 인물은 을지문덕이다. 과거의 시간성에 존재하는 을지문덕은 현재라는 시간성에 존재하는 한놈의 의식에 개입하고 한놈은 국민의 의식에 개입한다. 그의 소설에는 근대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물들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 내재된 인물의 형상이 결국에는 철저한 국가독립의 민족주의로, 혹은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면 이 두 작가의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광수는 민족을 외적인 것에서 신채호는 내적인 것에서 형상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에서 작가와 인물의 의식은 별개의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논증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역사소설의 경우 백 년 전, 천 년 전에 살지 않았던 작가가 그 당시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작가에 의하여 창조된 인물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쉽다.¹⁾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은 작가의식의 파편들이다. 신채호와 이광수가 살던 시대는 특히 당대 시대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작가의 의식과 무관할 수 없다. 민족개념이 대두되었던 시기였고 당대 소설은 국민과의 주요 소통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작가가 설정한 인물들은 국가의 위기에 봉착한 민족구성원들의 파편화된 모습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가는 고립된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²⁾ 여기서 작가가 발견한 통로는 작가 나름의 의식과 시선이 결합된 주관적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 즉 작가의 개성에 따라 통로의 형상이나 그곳을 통과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통로를 통과하는 방식은 작가의식의 문제이다. 같은 시대상황에서 작가시선이 어디에 포착되어 있느냐,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통로를 통과하는 핵심요소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두 작가의 문학에서 민족구성원의 모습은 어떤 존재로 형상화되었는가? 식민지라는 똑같은 공간에서 그들이 형상화한 인물들의 지향은 중국엔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그러한 도달점이 결국엔 각기 다른 민족주의 행보의 단서는 되지 않는가? 본고는 이

1)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 2010, 115면.

2) 미하일 바흐진, 이득재 역, 『바흐진의 소설미학』, 열린책들, 1988, 85면.

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광수와 신채호의 인물 형상화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민족구성원의 형상들

구소설을 개혁하여 실제의 사실에 바탕을 두고 민중을 계도할 수 있는 신사상을 담은 신소설을 만들어야 한다³⁾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의 공통된 관념이었다. 당대의 소설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회 공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공리라는 의미 속에는 구소설의 음담패설과 같은 것으로부터의 윤리성 회복,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사상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인 유학자들이 소설 배격론을 주장했던 것과 견주어 보면 소설은 민중과 소통하는 수단, 민중의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소설은 일종의 계몽적 수단, 국민개혁을 선도할 주제적 대상으로 주목되었다. 당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의식을 근간으로 소설개혁을 주도하였다. 이 개혁의 주도 속에 신채호와 이광수가 있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는 그의 정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의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간섭’의 의미망에는 거시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일반민중의 근대수용에 대한 경계가 포함되어 있다. 신채호는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사대주의 사상과 외국의 것을 무조건 맹종하는 노예적 근성을 경계⁵⁾하

3) 권영민, 『한국 민족 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26면.

4) 『태국주의와 민족주의』, 『대한매일신보』, 1909.5.28.

5) 신채호는 많은 논설과 정론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노예적 습성을 비판하였다. 『조선의 지사』, 1924~1925년경 추정, 『문예계청년들에게 참고를 구함』, 1923년경 추정.

였다. 수필 『利害』⁶⁾에서 “이 세계 안에 무릇 우리에게 리되는 것이 라 하거든 환영하며 받아들이고害되는 것이든 배척하여 말살 할지 라”하였는바, 이는 맹종하는 노예근성을害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상과 어떤 것도 민족의 이해가 구현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신소설의 근대정신은 수용하되 선정성은 비판하였다.

소설의 인물유형도 그러한 그의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설정한 소설의 인물들은 누군가의 자녀라거나 연애와도 무관하다. 인물 유형과 함께 공간적 배경도 근대적 배경과는 무관하다. 『利害』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문학의 공리적 기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그의 인물유형은 개인의 사적 탐색이 아닌 국가와 역사의 관계에서 설정되었다. 당대의 어떤 작가보다도 신채호의 관념을 지배하는 근거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국가의 위기에 요구되는 인물들은 거대한 근대의 위력 속에 리의 부분에 대당되는 인물이었다. 이는 그의 작품에서 포착되는 인물들이 국가의 미래 혹은 국가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유형이라는 점, 독자의 각성을 유도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둘 수 있다.

소설 〈꿈하늘〉의 한놈은 누군가의 아들도 소속도 없이 특정한 시공간을 배제한 채 등장한다.

가. 어니 달 어니 날이던가 때는 서울이던가 시골이건가 해외 어대던가 도모지 기억할 수 업는대 이 몸은 어대로서 왔는지 듯지도 보지도 못하던 크나큰 無窮花 몇 만길 되는 가지 위 널으기가 큰 房만한 꽃송히에 안졌더라.

나. 꽃송히 위에 안졌던 한놈은 두 노래 곱헤 크게 늑기여 따에 업들여서 울며 일어나지 못하니 꽃송이가 또 가만

6) 김병민, 『신채호유고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5, 139-145면.

히 「한놈아」 불으며 꾸짖되 「울음을 썩 그쳐라 世上일은 숭다고 닛는 것이 안이나라」하거늘 한놈이 고개를 들어 左右를 살피니 악가 노래하던 大將이 곳 압해 섰더라 그 얼굴을 자세히 뜨더보니 마치 언제 뵈은 어른갓다. 한참 서슴다가 (중략) 「을지문덕이신져」하고 일어나 절하며 무삼 말을 물으랴 하나⁷⁾

이 소설의 주요인물은 한놈이지만 한놈을 이끄는 인물은 을지문덕이다. 가)의 제시문처럼 신채호는 이 소설에서 인물의 출생이나 출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을지문덕은 그의 출신보다 위기극 복이 완료된 자라는 점에서 호출되었다. 한놈의 출현은 시간성 속에서 그 의미가 획득된다. 신채호가 형상한 인물들은 대부분 창조되지 않고 원래 있었던 존재의 호출방식을 따른다. 한놈은 신채호의 호이므로 그 자신이 민족의 주체로서 이 소설의 주요인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을지문덕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적 인물로서 호출되었다. 여기서 한놈은 공간을 초월하여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가 근대적 공간보다 현재라는 시간성, 즉 위기를 탑재하고 있는 국가상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설정한 인물들은 국가와 반드시 연계되어 있고 주변인물 혹은 상황에 의해 내면의 각성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다른 작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지만 이광수가 설정한 근대 공간과도 대비되는 지점이다. 그것은 고소설에서 보이는 특정한 공간들과도 비교되는 지점으로 신채호소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신채호의 시선은 당대, 곧 위기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 식민지의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을지문덕은 이 소설의 전부분에서 한놈의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만일 을지문덕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호출의 의미가 없다.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7) 김병민, 위의 책, 20-23면.

투쟁하여 승리를 쟁취한 영웅이라는 점에서 을지문덕은 의도적으로 호출되었다. 한놈과 을지문덕이 존재하는 공간 또한 상징적인 공간만 존재할 뿐 근대적인 공간은 배제되어 있다. 근대적 공간은 배제되어 있으나 당대위기에 극복할 근대적 과제는 제시하고 있다. 한놈과 을지문덕과의 조우는 현재위기의 시간성과 위기를 극복한 과거의 시간성과의 만남이다. 근대의 공간과 을지문덕이 살았던 공간은 사라지고 민족생존이 달려있는 시간적 지점만 존재한다. 이 소설에서 공간적 영역의 특정부재와 달리 시간적 영역은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다. 때는 檀君 紀元 四千二百四十 몇해.

라. 乙支文德 그이는 檀君二千年頃의 어른이오 한놈은 檀君 四千二百四十一年에 난 아기.⁸⁾

다)의 제시문은 이 소설이 시작되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는 한놈과 신채호의 시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의 명확한 시간적 제시는 의도적이다. 작가는 극복이 완료된 과거의 시간성과 위기에 봉착한 현재의 시간성을 대비시켜 당대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신채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놈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고 인물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님나라’라는 특정된 공간은 근대적 공간이 아닌 미래의 시간에 획득해야 할 독립된 국가를 의미한다. 그 독립된 국가 또한 이광수나 다른 작가들이 제시한 구체적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외적 영역이 아닌 내적 영역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신채호 소설에서 인물들과 연계된 시간의 구체성은 공간에 비해 비중 있게 제시된다.

8) 김병민, 위의 책, 24면.

과거의 시간성	현재의 시간성	미래의 시간성
단군 2000년	단군 4241년	비시간성(지향점)
위기극복완료	위기 극복 필수 요소: 내면의 각성	독립된 국가(님나라): 각성완료시 획득가능

신채호의 지향점은 미래의 시간성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지향점은 과거와 현재의 공모 없이 획득이 불가능하므로 시간성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성이 배제된 '님나라'라는 궁극적 지향점의 필수요소는 내면의 각성이다.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정신적 투쟁이 근대적 공간이나 개인의 내면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신채호가 국가를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⁹⁾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이광수가 설정한 인물들은 근대의 기반위에서 설정된 인물들이다. 때문에 <무정>은 한국의 풍부한 풍속 사진으로서의 흥미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록물이라 평하기도 한다.¹⁰⁾ 근대의 거리에서 '국가'를 결여한 인물들은 계몽적 성향이 강한 인물군으로 형상되어 있다. 영채 또한 '기생'이지만 근대적 인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하는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신채호의 소설과 달리 이광수의 소설은 도처에 봉건적 요소들이 잔재하고 있다. '기생'이 구시대의 한 유물이라는 점, 계몽의 선두에 선 형식이 부친의 언약에 영채와의 관계를 괴로워하는 점, 근대를 상징하는 선형이 부친의 말에 혼인을 결정하는 점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확보한 공간은 근대적이다. 인물들은 근대 문물이라는 공간에서 봉건적 잔재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성은 이에 비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근대적 공간에서 봉건적인 요소들과 연계된 질문들이

9) 『정신상국가』, 『대한매일신보』, 1909.4.

10) 김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식민지를 안고서』, 역락, 2009. 21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갈 뿐이다. 내지인의 활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의 인물유형들 또한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민족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습관·문화·역사 등을 함께하는 인간 집단을 의미하는 민족의 모습은 작가의 의식에서 설정된다. 신채호의 인물군이나 이광수가 설정한 일련의 인물군은 당대 우리 민족의 한 단면이라 추정할 수 있다.

작가는 봉건적인, 근대적인 인물을 월화를 통해서 분류한다. 기생을 ‘기생’으로 보는 유형과 기생을 ‘사람’으로 보는 유형이 그것이다. 월화는 영채에게 “평양에 일류 명사”라는 것이 “모두 다 허수아비에게 옷 입혀 놓은 것”으로 치부한다. 또한 다른 기생들을 “저것들은 소리와 몸을 팔아먹고 사는 더러운 계집들이란다.”라고 언급하고 자신과 영채를 그들과 변별한다. 이는 그가 만나 본 인사들을 구분하는 방식과 같은 개념이다. 즉 자신과 영채가 “소리와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듯 남자들 또한 ‘평양에 일류 명사류’와 ‘함교장류’와 같은 두 유형으로 분리된다.

마. 월화는 영채의 귀에 입을 대고 “저기 모인 저 사람들이 평양에 일류 명사란다. 그런데 저 소위 일류 명사란 것이 모두 다 허수아비에게 옷 입혀놓은 것이란다”¹¹⁾

바. 다른 사람들은 월화를 다만 한 장난감으로 알되 그네는 비록 기생을 천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역시 내 동포여니 내 누이여니 하는 생각은 있다.

온 조선 사람이 다 자고 꿈을 꾸는데 함교장 혼자 깨어 일어났구나. 우리를 찾아오는 소위 일류 신사님네는 다 자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깨어 일어난 것은 함교장뿐이로구나.¹²⁾

11) 이광수,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73, 63면.

12) 이광수, 위의 책, 66면.

마)의 같은 인물 유형은 물론 영체를 유린한 배학감과 김현수와 같은 인물군이며 바)와 같은 인물군은 형식이나 병욱 남매, 그리고 의식 있는 월화 자신, 연설장에서 본 학생들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 의식 있는 자들의 두 번째 인물군인 함교장과 월화의 입을 통하여 당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교에도 '새로운 평양성과 새로운 을밀대를 쌓자'라고 함으로써 식민지근대의 위기감보다 외형적 근대에 기준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의 공간 또한 패성학교의 대강당이다. 근대적 학교인 패성학교 학생에 대한 긍정적 시선 또한 봉건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대비시키고 있다. 근대적인 사고와 근대문물을 주요대상으로 일괄한 이 소설은 그 의식의 기반이 봉건에서 근대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광수의 소설에서 공간은 민족이 나아갈 길과 연계되어 있다. 그의 민족의식은 봉건에서 근대로의 이행에 있으며 국가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 즉 식민지라는 위협적 요소는 봉건성을 타파하고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했을 때 해제된다고 본 것이다.

바. 월화는 조선 사람의 무지하고 야속함을 원망하였다.
사. 이 무너져가는 평양성과 을밀대를 다 헐어내어 13)

바)의 제시문에서 월화는 '조선사람'을 부정적 시선으로 보았고 사)의 함교장 또한 조선의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학교'와 같은 근대문물은 긍정적 시선을 부여한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선민족은 평양성과 을밀대처럼 부수고 다시 쌓아야 하는 개조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의식은 훗날 그의 일본 국민 되기에 대한 열망, 『민족개조론』(1922)을 이미 배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소설의 전형이 된 이광수의 소설은 이처럼 그의 지향점이 조선의 신

13) 이광수, 위의 책, 66면.

문명화에 있다는 것을 인물들의 여러 시선을 통해 발의한다.

반면 고소설의 인간유형에도 근대소설의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신채호의 인물유형은 민족이 나아갈 지향점을 국가 독립에 두었다. 그 지향점의 필요요소인 내면의 극복을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존재를 호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물들이 응시하는 지점에서 작가의식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두 작가의 다른 행보의 민족주의가 중국에 다른 형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인물들이 응시하는 시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각성과 개조의 거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채호의 소설에서 당대의 위기는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의 특징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신채호가 민족 의식의 회복을 국가의 위기극복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신채호의 인물들은 대부분의 소설에서 각성의 과정을 거친다. 국가와 인물과의 거리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진다.

가. 한놈이 「님나라로부터 구경하러 왔스니 들어 가게 하여 주소서」한즉 「네가 밧칠 것 이서야 들어가리라」하거늘 「밧칠것이 무엇임니가 돈임닛가 쌀임닛가 무삼 보배임닛가」한대 「그것이 무삼 말이나 돈이던지 쌀이던지 보배이던지는 人間에서 貴 한것시오. 님나라에서는 賤한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밧칠닛가」 「다른 것 안이라 대개 情이 만코 苦痛이 곱흔 사람이라야 우리의 놀음을 보고 깨닫는 배 잇스리니 네가 人間三十餘年에 눈물을 몇줄이나 흘렸느냐 눈물만 혼이는 情과 苦痛이 만흔 이 때 이 놀음에 참여하여 上等손이 될지오. 그 남어는 中

等손·下等손이 될 지요. 아조 적은 이는 들어가지 못하
나니라」

나. 「그러면 오직 나라 사랑이며 동포사랑이며 대적에 대한
의분의 눈물만 쏟넋가」 「그러니라 그러나 그 눈물에도
眞假를 골으느니라」 이러케 밧고 차기로 말하다가 左右
를 돌아보니 한놈의 平日親舊들도 어대로부터 왓는지
문압히 그득하더라.¹⁴⁾

가)의 제시문에서 한놈이 들어가려고 하는 님나라는 조건이 부여
되어 있다. 나)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인물의 각성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한놈의 가치는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에서 부여된다.
상징적인 님나라라는 공간은 이처럼 한 인물의 각성으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신채호의 인물은 개인의 사적 탐색이 아닌 국가와
연계되어 그가 제시하는 인물이 끝까지 국가가 필요한 인물유형으
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 내적 영역에 해당되는 각성은 신채호의 대
부분의 소설에서 드러난다.

다. 윈 세상사람을 다 인도할만한길이 「도」가 안임닛가? 윈
세상사람을 다 감복하게 하는 사랑이 「덕」이 안임닛가?
대왕이 글과 경문을 지어 대왕의 「도」로 세상을 인도하
시라면 사람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업스면 사람
들이 더욱더욱 반감이 나아 대왕이 가라는 길로 안이가
고 딴 길로 달어 남니다. 여기에는 칼이 쓸대 업습니다.
만일 우리 백성이 칼을 들고 날어나 대왕의 경문을 배척
한다하면 대왕이 칼로 정복하시려니와 대왕이 보지도
못지도 못하는 곳에서나 속마음으로 대왕을 훼방하거던
사랑으로 정복하소서.(중략)

14) 신채호, 『단재 신채호 전집』 7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85-286면.

라. 하로 동안에 무고히 오륙백명 사람의 목을 베이던 때에
 그 만흔 사람의 울음소리가 땅이 꺼져도 눈도 깜짝 안이
 하던 악마갓흔 대왕이 왕후의 멧방울 눈물에 마음이 절
 이어 그 무든 경계에 고개를 숙이니¹⁵⁾

〈일목대왕의 철퇴〉에서의 공간도 구체적 공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공간의 배제는 인물의 의식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학교 혹은 기생집, 김장로의 집에서 인물들의 의식은 그 공간의 구조에서 구체화되지만 궁예의 시대에서 의식을 지배하는 요소는 각성을 이끌기 위한 언술에서만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 궁예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유도하는 근거는 그의 각성에 있다. 각성이란 ‘깨어 정신을 차림’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각성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지향에로의 이향을 의미한다.

다)의 제시문에서 왕비는 사랑으로 道와 德의 이행을 궁예에게 제시한다. 라)에서의 궁예의 각성은 『꿈하늘』의 한놈의 각성과 유사하다. 궁예의 각성 또한 깨달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무지했던 것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마. 이번에는 돌아가 문벌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집어바
 리고 엽분을 정실을 삼아 다리고 살으리라 하얏습니다.

바. 엽분이도 그런 눈치를 의례히 채울 지혜가 잇지만 그러
 나 이것도 저것도 다 싣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엽분
 은 죽을 때까지 정결한 처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조를 직히녀라고 처녀로 잇슨 것이 안이라 이 세상에는
 내 서방될 산아희가 업고나 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
 온 일입니다.

15) 신채호, 위의 책, 329-330면.

〈백세노승의 미인담〉에서도 같은 맥락의 각성이 제시된다. 이 소설에서 노승은 엽분이를 통해 귀족신분이라는 허상을 비판한다. ‘미인담’은 처음에는 귀족들의 아내자랑으로 시작되지만 중국에는 엽분의 의기에 주안점을 둔다. 노승의 각성은 봉건의식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기존 소설에서와 같이 내면적 지향이 외적인 것보다 우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의 각성은 귀족신분으로서 불가능한 제도를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바)는 의기를 가진 엽분을 통해서 외적 형식에 얽매어 있는 민족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각성들은 그러한 점에서 지극히 계몽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계몽의 지점이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채호가 설정한 인물유형은 각성에 바탕으로 두고 그를 근간으로 민족의식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사. 그의 말하는 제목은 조선 사람도 남과 같이 옛날 껌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실어 들여야 할 일과 지금 조선 사람은 게으르고 기력이 없나니 새롭고 잘사는 민족이 되려거든 불가불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하려면 교육이 으뜸이니 아들이나 딸이나 반드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이라.
(밑줄-필자)

이에 비해 이광수의 의식개혁은 각성에 있지 않고 개조에 있다. 개조란 ‘고쳐 만들거나 바꾸’, 즉 전환이 아니라 변경에 있다. 신채호 소설의 인물들이 미처 몰랐던 것으로부터의 깨달음에 있다면 이광수의 인물들은 전환이 아닌 개조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것이 이광수의 ‘문명화론’이 민족주의 담론으로 완벽하게 기능¹⁶⁾하지 못하는 근거를 형성한다.

16) 김경미, 『이광수 문학과 민족 담론』, 역락, 2011, 95면.

사)의 제시문에서 이광수는 조선 사람의 의식개조를 촉구한다. 근대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근원까지 탈바꿈을 제시한다. 주목할 점은 이 의식의 개조의 지향점이 ‘새로운 문명’, ‘잘사는 민족’에 있다는 점이다. 신채호와 달리 그의 지향점은 국가의 독립보다 근대라는 거대한 목적지에 조선을 개조해서라도 획득해야 되는 존재로 등장한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민화를 민족주의 담론으로 변용¹⁷⁾한 것이나 민족 개조운동이 문화운동으로 전개된 근거 또한 이미 초기 소설에서의 인물설정에서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광수는 우리 민족이 쇠퇴하게 된 역사적 원인을 조선조의 치자계급인 국왕과 양반층의 도덕적 타락¹⁸⁾으로 보았고 민족성은 타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족개조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민족성의 위대함을 내면에서 찾고 내면으로부터의 각성을 소설에서 주도한 신채호의 소설과 변별점을 갖는다.

이광수의 이러한 인물설정은 그 의식의 소산이다. 신채호의 인물설정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하나는 각성을 근간으로 민족구성원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향점으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개조를 근간으로 민족전체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이 두 작가의 민족주의 방향은 이와 같은 인물설정에서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담론의 두 지향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두 작가는 각각의 인물군을 통하여 민

17) 김경미 위의 책, 180면.

18)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87면.

족의 각성과 개조를 제시하였다. 신채호의 경우 소설은 다른 맥락으로 민족운동의 소산이었다. 그가 민족의 각성을 끝까지 소설에서 제시하고 민족의 독립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 민족의 역사연구를 끝까지 관철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역사연구를 통해 그는 단군을 민족의 근원으로 제시하고 광개토왕을 통해 민족의 위대함을 탐색하였다. 민족정신론에 입각한 신채호의 국수보전론은 독립자유정신·국권회복의 목적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양상¹⁹⁾을 보인다. 『독사신론』이나 고구려·발해의 한 민족 사적답사²⁰⁾에서 그는 민족이 주체되는 국가를 꿈꾸었고 중국에는 민족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의 힘을 인식하게 된다. 그가 민중을 새롭게 발견하는 배경에는 형식상 국가의 소멸과 밀접하게 관련²¹⁾되어 있다. 국가의 소멸이라는 위기에서 그는 이를 극복할 영웅을 기다리며 영웅전기소설을 집필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고 조국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념으로 제창된 것이지만, 그 사상적 기초는 사회진화론²²⁾이었다. <꿈하늘>은 그러한 신채호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수주의적 색채가 짙은 소설이다. 신채호가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극복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 혁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나키즘을 접하게 된다. 러시아 혁명 이후 대동사상과 결합된 사회개조·세계개조론을 제창하던 신채호는 3·1 운동과정에서 민중의 폭발적인 힘을 보고 이를 자신의 상상으로 수용하게 된 것²³⁾이다.

그가 집필한 소설의 인물유형경로를 보면 <꿈하늘>의 한놈에서

19) 배용일,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 경인문화사, 2002, 119면.

20) 李允宰, 『북경시대의 단재』, 『단재 신채호 전집』 하, 형설출판사, 1977, 479면.

21) 김종학, 『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 『세계정치7』, 2007, 270면.

22)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10, 198면.

23) 위의 책, 『단재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204면

개인의 각성에서 의식 있는 민중의 각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1910년 조선을 떠나 긴 망명길에서도 그는 〈일목대왕의 철퇴〉, 〈일이승〉, 〈백세노승의 미인담〉, 〈이팔〉, 〈박상의〉등을 저술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각성과정을 통하여 독자들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1928년의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그는 『선언』에서 제시한 그의 이상을 형상화시켰다. 그의 소설들을 종합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을 민중으로 유도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각 계층의 각성²⁴⁾은 국민에서 민중을 운집하려는 시도²⁵⁾라고 볼 수 있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주목할 점은 알레고리라는 미학적 수법²⁶⁾을 통하여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민중들을 제외하고 각각 모든 인물들이 상징적 존재들로만 형상되어 있다. 특히 각성이 완료된 민중항쟁은 외형적으로 아나키즘적 국가의 완성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의 주안점은 아나키즘의 완성보다는 민족의 독립에 있다. 지배층의 몰락은 이미 각성한 민중의 힘에 의한 식민지배의 주체인 제국주의의 파멸로 볼 수 있다. 이 소설 또한 고전소설의 기법과 함께 근대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과 지상이라는 이원화된 공간은 하나의 상징으로 설정되어 있고 식민지를 탐하는 지배층과 지배층의 실체를 파악하기 전·후의 민중만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가 아나키즘의 수용조차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에 근거를 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식민지화된 정부의 실체는 일본 제국주의이다.

24) 줄고, 『신채호문학에 나타나는 민족연구』, 현대소설연구60, 2015, 178-200면.

25) 줄고, 『신채호소설의 '민중'연구』, 어문논집76, 2016, 71-89면.

26)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10, 277-278면.

- 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 나.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 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중략)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²⁷⁾

위의 제시문들은 신채호가 『선언』에서 주장한 일부분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가)의 실상은 실질적으로 민중이 혁명의 주체로 주도되지는 않는다. 민중은 소설에서 언술을 통해 대본영임을 드러낼 뿐이다. 나)의 폭력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또한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언술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이 소설에서 신채호가 지향하는 목적지점은 다)에서 드러난다. 작가는 구체적으로 지배자의 민낯을 날낱이 밝힘으로써 민중의 힘을 역으로 드러나게 한다. 궁극적으로 신채호가 인물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당대 현실에 부합한 인물들이다. 그의 궁극적 지향점이 결국 국권회복에 있다고 볼 때 신채호에게 있어 근대적 인물은 내면의 각성을 통해 국권회복에 기여하는 민중이다.

이광수의 민족주의 담론은 제국주의 담론의 모방의 반복을 통해 형성²⁸⁾되었다. 그의 민족주의 이상은 ‘문명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정〉의 주인공인 형식, 선형, 병욱, 김장로, 배학감등은 신문명에 근거하여 형성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신문명을 근간으로 형성된 인물유형은 〈무정〉뿐만 아니라 그의 소설 대부분에서 보이는 유형들이다. 그의 민족주의가 일체의 선진문명을 수호하고 동화주의 식민담론을 수용하여 종국에 내선일체의 민족주의를 지향한 것은 당연한 행보로 보인다.

이광수의 문명개화 예찬은 그가 외적인 것으로부터 그의 지향점

27)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범우사, 2014, 37면.

28) 김경미, 『이광수문학과 민족담론』, 역락, 2011, 31면.

이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정>에서 평양의 칠성문 밖 평상위의 ‘낡은 탕건을 쓰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노인’을 통해 구시대를 조소하고 문명개화한 현실을 상찬한 이광수는 이 소설을 통해 구시대를 비소²⁹⁾한다. 월화 또한 함교장의 설교를 듣는 학생들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기생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 자살의 원인은 내면적 깨달음에서 기원된 것이 아닌 “평양 성내에 월화를 보고 눈에 음란한 웃음을 아니 떠는 자는 패성학교 학생밖에 없을 것이라.”는 외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월화의 자살은 혼자 유일하게 갠 사람이었기에 가능하다. 그 의식은 죽음을 통해 기생인 몸을 죽이고 사람이라는 의식으로서 탈바꿈함으로써 재생된다.

바바는 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타자성’이 이데올로기적 고정성에 얽매인 개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전통적으로 식민주의 담론은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의 동일화 논리에 근거하여, 서구/비서구의 관계를 고정시키고, 전자에는 선, 문명, 이성 등과 같은 향을, 후자에는 악, 야만, 감정 등과 같은 향을 대입시켜서, 정형화된 타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³⁰⁾이다. 욕망의 목적인 동시에 조롱의 대상인 흥내내기를 통해 식민주의 담론의 경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소설에서 지향하는 근대 또한 추상적이고 지극히 모방적이다. 인물들의 지향점이 “자아를 공고히 하는 타자”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것들의 해체를 통해서 주조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29) 양문규, 『이인직과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와 민족문제』, 민족문화사 연구13, 1998, 66면.

30) 정혜옥,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심문:가야트리 스피박』,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 59면.

라.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 수록에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팡치 소리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야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390면)

이러한 외형적인 근대에 대한 답습을 통해 토착문화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이광수가 민족개조를 통해 피상적 식민타자로 전락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정』에서의 인물군상의 전형을 통해 그의 민족주의는 외적인 혁신을 지향하는데서 이미 주체적 민족주의의 개혁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신채호와 이광수의 소설에서 보이는 인물유형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의식을 살펴보았다. 20세기 초 이미 일본제국에 의해 식민지화된 한국의 경우에는 근대화가 주체적으로 주도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식민지화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서 대등한 관계로 존립될 수 없었고 민족의 삶은 유린되고 그 정신문화까지 침탈 받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근대화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표면에 내세우고 민족의 의식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했던 신채호와 이광수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인물들의 유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규정하는 작업은 작가의 내면세계에서

구체화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민족의식은 식민시대의 암울한 현실에서 같은 지점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이 두 작가가 형성한 민족의 모습들은 다르게 드러난다.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출발한 이 두 작가의 시선은 서로 다른 지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당대 지식인으로서 계몽을 주도했던 신채호와 이광수의 문학은 국민교화에 그 가치를 두고 공리에 준하는 문학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근대라는 대항마는 이광수에게는 민족을 개조해서라도 수용해야 할 존재였고 신채호에게는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대상과 함께 온 존재였다. 신채호는 근대의 어느 것도 피상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소설에서만 본다면 신채호의 근대는 민족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이 근대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고 이광수의 근대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은 개조하고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대상이었다. 신채호에게 있어 민족은 주체이고 근대는 객체였다. 반면 이광수에게는 민족이 객체이고 근대가 주체였다. 이 두 개의 다른 인식은 민족에 대한 형상도 다르게 규정된다. 신채호의 민족은 내면의 각성을 통하여 민족의 대통합과 주권을 되찾는 대상이지만 이광수의 민족은 낡은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근대국가로 개조되는 것이었다.

소설에서 인물들의 유형은 작가의 내면세계의 의식적·무의식적 발로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채호의 인물들은 지극히 의식적이고 유도된 인물유형이라 볼 수 있다. 신채호의 인물들은 계층마다 각성의 계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민중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광수의 인물유형은 다소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인물유형이라 볼 수 있다. 국민계몽을 주도하고 지식인의 선도주자로서 대중의 민족의식을 대변했던 이광수의 민족개조에 대한 입장은 그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설정한 인물들의 유형에서 엿볼 수 있



다. 그가 설정한 근대는 우상의 대상이며 민족의 낡은 것들은 이미 버려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그의 의식 속에 민족은 기생의 존재만큼이나 전근대적일 수 있다. 기생 월화가 죽은 이유는 기생이 기생이 아닌 '사람'이라는 근대적 의식에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이 광수가 지향한 민족의 모습은 기존의 것을 소멸하는 방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9권,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사상연구: 신채호를 중심으로』, 1996.
-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 상, 중, 하. 형설출판사, 1975.
- _____, 『단재신채호전집4』(별집), 형설출판사, 1977.
- _____, 『단재신채호전집5』(보유), 형설출판사, 1975.
- 이광수,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74.
- _____, 『이광수전집10』, 삼중당, 1973.

2. 국내자료

- 김동훈, 허경진, 허희훈 주편, 『신채호 산문집』,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2010.
-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아침, 1989.
- 김상웅, 『단재신채호평전』, 시대의 창, 2005.
- 김용섭, 『우리나라근대 역사학의 성립』, 『한국의 역사인식』 하, 이우성, 강만길 편, 창작과 비평사, 1976.
- 김인환, 『신채호의 근대성 인식』, 『민족문화연구』 30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7.
- 김윤식, 『韓國 現代文學批評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_____, 『한국 현대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내가 살아온 한국 현대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2009.
- _____, 『한·일 근대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_____, 『韓國近代作家論攷』, 일지사, 1990.
-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2005.
- 김중학, 『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 『세계정치』 7,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 2007, 234~275면.

- 金哲垓, 「단재사학의 위치」, 『한국문화신문』, 지식산업사, 1977.
- 김현주, 『단재신채호소설연구』, 소명출판, 2015.
- 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사회와 윤리』, 문학과 지성사, 2003.
- 문학과 사상연구회, 『이광수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9.
- 배용일,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 경인문화사, 2002.
-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 _____, 「무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신선희,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전통의 전유방식과 타자인식」, 『한민족어문학』 71권, 한민족어문학회, 2015, 249~285면.
- 愼憲緯, 『李光洙小説의 分析的 研究-作中人物을 中心으로-』, 삼지원, 1986.
- 어네스트 겔너,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옮김, 도서출판 예하, 1988.
- 李秉憲, 「이광수의 문예론 연구」, 『민족문화연구』 22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9, 191~217면.
- 전병준, 「신채호의 『꿈하늘』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인문논총』 28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7~104면.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10.
- 최주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 『인문논총』 70권 6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3, 257~295면.
- 최강민, 「1920년대 민족 우파와 민족 좌파가 표출한 조선의 민족성」, 『한국어와 문화』 10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95~122면.
- 송하춘, 『1920年代 韓國小説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하정일, 「후기 신채호의 아나키즘과 최종심급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문화사연구』 41권, 민족문화사학회, 2009, 10~34면.
- 하타노 세츠코,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 한승옥, 『이광수 장편소설연구』, 박문사, 2009.

<Abstract>

Two different eyes about colonial people
—Focusing on Shin, Chaeho and Lee, Kwangsu—

Kim, Hee-Joo

This paper is to track how the shape of the nationalist discourse unfolds through the type of characters developed in the fictions of Shin, chaeho and Lee, kwangsu. Characters in authors play a role in representing or discussing the writer's thoughts. Lee's nationalist views ultimately lead to national transformation and the nation's members move toward the modern age.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s of Shin's fictions start from the realization of the individual and eventually move toward the people's resistance. In the fiction, Shin's modernism was to embrace the subject of self-reliance, Lee's modernism was to be transformed and disposed of by the old things the people of modern times had to do. It is true that the characters are shaped by the author's consciousness. However, these two writer's thoughts of the people are noteworthy if the figure in author's consciousness is ultimately converted into a nationalist of independence, or toward a nationalist, which is oriented towards the eventual oneness of Japan and Korean. In this regard, Lee may have tried to form an image from outer part of the nation, Shin to form an image from inner part of the nation.

Key words: the people, nationalist, author's consciousness, oneness of Japan and Korean, Shin, Chaeho, Lee, Kwangsu



투 고 일 : 2017년 2월 10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